

**마침내 완성된 DFIS 식당, 감사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.**

**"하나님께 감사, 준비한 손길에 감사, 따뜻한 햇볕과 비와 자연에 감사!"**

그동안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덕분에, DFIS 학교의 식당 기본 건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. 재정이 열릴 때마다 조금씩 벽돌을 올리다 보니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, 이제 학생들과 교사, 이삭공동체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. **기도와 물질로 도움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** 비와 햇볕으로 설거지가 어려워 지붕 처마를 더 내는 일과 식탁과 의자 제작에 부족한 재정까지 다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^^

현재 식당은 탁자와 의자를 제작하는 중이라 아이들은 바닥에 모여 식사하고 있습니다. 조금은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, 새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.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.

**저희에게 식당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** 아이들이 한 끼라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.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한 끼가 제대로 먹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. 식사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그중 한 가지 방법은 이삭공동체에서 양계 규모를 늘려 학생들에게 매일 유정란을 먹이면 학생들의 영양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. **곧 DFIS 학생에게 유정란 공급 프로젝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^^**

특히 식당 벽면에는 큼직한 유리블록으로 **'Thanks to God, Hands and Soil'**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. 식사 전, 아이들은 이 글귀를 바라보며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.

**Thanks to God** :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

**Thanks to Hands** : 이 식탁이 준비되기까지 협력해 준 손길들에 감사

**Thanks to Soil** : 따뜻한 햇볕과 공기와 비와 양분을 내어준 자연에 감사

마치 밥상머리 예절처럼, 점심 식사 전에 올려 퍼지는 이 세 가지 감사 고백은 식당을 가장 아름다운 교육과 영성의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.

DFIS 식당이 아이들의 육과 영을 채우는 온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, 앞으로 식사 질 향상을 위한 걸음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2026년 6월 이삭공동체에서 김기대 류소현 드립니다.

**이런 식당이 되게 해주소서!**

1. 너무 행복할 때 나오는 단어가 "밥맛이야"가 되도록
2. 음식물 쓰레기가 Zero 되는 식당이 되도록
3. 점심 밥맛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이 없어지도록
4. 교실에는 지혜를, 식당에는 감사와 사랑과 나눔을 배우도록











\* 후원은 아래 두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- \*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계좌: 국민은행 068-25-0015-971 (사단법인 미션컴몬 그라운드)
- \* 일반 계좌: 하나은행 112 18 483650 (김기대)
- \* 미션펀드: <https://go.missionfund.org/dfisisac> (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)